

경연, 왕의 공부 이야기 7 <경연에서 지난 왕조의 왕들을 논하다>

『성종실록』 성종 6년 을미 2월 8일의 일이다.

야대에 나아갔다. 『고려사』를 강론하다가 의종(毅宗) 15년(1161)의 다음의 기사에 이르렀다.

“왕이 총애하는 여자가 방술을 하여서 비밀히 닭 그림을 임금 침상의 요안에 넣어두었다.”

성종 : 어찌하여 닭 그림을 쓰는가?

유순 : 예전에 듣지 못한 바인데, 특히 당시 임금에게 아첨하려고 요사스러운 꾀를 낸 것입니다.

현석규 : 임금은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종이 음양구기(陰陽拘忌:주술적인 미신)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자주 좌도(左道:바르지 못한 일)로 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漢)나라 때의 ‘무고(巫蠱)의 화(禍)’도 역시 무제(武帝)의 허물입니다.

성종 : 음양구기가 가장 일에 방해된다.

현석규 : 고려 태조도 덕이 성대한 임금이었으나, 창업 초기에 도선(道詵:신라 말엽의 이름난 중)의 비보지설(裨補之說:풍수지리의 비보설)을 신용하여 자손에게 준 계책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세 자손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염승익은 주술사였는데 벼슬이 재상에까지 올랐으니, 이때의 일을 알 만합니다.

강을 마쳤다.

성종 : 고려의 임금 가운데 의종이 가장 못한가?

현석규 : 충혜왕은 의종보다 더 못합니다. 충혜왕의 호협경박(豪俠輕薄:호방하고 험기가 있으나 가볍고 경솔함)하여 추하고 더러운 행실은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조년이 경계하여 아뢰기를, “무릇 유자(儒者)라면 말은 요·순을 일컫고 행실은 공자와 안자를 본받아야 하는데, 전하는 이들을 지목하여 사개리(沙筍里:유생을 가리키는 몽골어로서 물정을 모르는 서생이라는 뜻)라고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과 더불어 노는 자가 모두 무뢰한 자제인데, 어떻게 바른 말을 듣고 바른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왕이 송강에서 참새 잡이에 빠졌을 때 이조년이 간절히 그만두기를 간하였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조년은 물러가 성산에 숨어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원(元)의 사신이 왕을 붙잡아 가지고 돌아갔으나, 신하 가운데 한 사람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원의 황제가 충혜왕을 꾸짖기를 “너의 살을 찢어서 천하의 개를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겠다.” 하고, 곧 함거(檻車: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에 싣고 계양에 왕을 귀양 보냈는데, 악양에 이르러 길에서 죽었습니다.

의종은 잔인하고 포악한 임금은 아니지만, 놀고 구경하는 것을 즐겨서 군신이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국사를 돌보지 않았으며, 또 시 짓기를 좋아하여 들뜨고 경박한 문신들과 더불어 서로 번갈아 운을 부르고 화답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문신들이 교만하고 사치해져서 무사를 업신여겨 보고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며, 더러 무신의 머리에 오줌을 누는 자까지 있어서 마침내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를 거울삼아서 문무를 하나로 하고 한결같이 대우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역사 알기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시경』에 ‘은감(殷鑑)’이라는 말이 나온다. ‘은나라 거울’이란 뜻이다. 은 이전의 하(夏)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은나라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 걸왕(桀王)의 폭정으로 망한 하나라 역사를 거울로 삼아 경계를 늦추지 말자는 다짐이다. 당(唐) 태종 또한 ‘옛것을 거울로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다.’며 역사를 거울로 삼아 ‘정관(貞觀:태종의 연호)의 치(治)’로 불리는 태평성세를 일궜다.

조선의 거울은 고려 후기의 정치적 혼란이었다. 고려왕조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겪으면서 왕권은 더욱 약해졌다. 의종은 왕위에 오르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쉽지 않았다. 형편없이 약해진 왕권으로 세상을 바꾸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저 날마다 문벌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며 흥청거렸다. 이런 가운데 무신들의 불만이 커졌다. 같은 지배층이지만 문벌 귀족과 차별이 매우 심하였던 것이다. 대개 문신보다 신분이 낮아 벼슬의 등급이 같은 문신에게도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 군사 지휘권도 없어서 무신의 지휘를 받아야 하였다. 게다가 못된 문신들이 무신들의 수염을 태우거나 뺨을 때리는 등 자존심을 건드리니 무신들의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올 만도 하였다.

1170년, 고려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다. 의종 24년 8월 그믐날 밤 보현원에서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 무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문신 귀

죽을 죽이고 권력을 움켜쥐었다. “문관의 관을 쓴 자는 아무리 벼슬이 낮아도 모조리 죽여라.” 이 명령에 따라 9월 초하루까지 이어진 정변은 의종을 쫓아내고 무신이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때부터 꼭 100년 동안 무신들이 주름잡는 세상이 되었다.

한편 위의 기사에서 말하는 ‘무고(巫蠱)의 화(禍)’란 한나라 무제 때 여태자(戾太子)가 일으킨 난을 말한다. 한무제 때 방사(方士:점술, 연단, 주역 등에 밝은 술수학의 전문가)와 무당의 무리가 궁인을 피어 목인(木人:나무로 만든 우상)을 궁중에 묻고서 제사지냈다. 이때 마침 무제가 병이 들었는데, 여태자와 틈이 있었던 강충(江充)은 무제의 병이 무고(巫蠱)에 의한 것이라면서 궁안에 묻혀 있는 목인을 파내고, 태자의 궁중에서 목인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아뢰었다. 이에 여태자는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강충을 체포하고 병사를 일으켜, 5일간 장안성에서 시가전을 벌였으나 실패하여 자살하였다. 이듬해 무제는 차천추(車千秋)의 상소를 통하여 태자의 잘못이 없음을 알고 태자를 죽게 한 것을 후회하고 강충의 집안을 멸족시켰다.